

전 남

제주가는 가장 빠른 배길 완도 블루나래호 큰 인기

취항 7개월만에 탑승객 18만명

완도에서 제주로 가는 패속선 블루나래(사진·완일고속)호가 취항 7개월 만에 누적 탑승객 18만명을 돌파하는 등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한일고속은 27일 “지난 1월 19일 첫 취항한 블루나래호에 18만여명의 관광객이 탑승했고, 차량 2만7000여대도 수송하는 등 ‘제주 배길’의 효과 노릇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루나래호의 인기에 힘입어 완도~제주간 여객선 전체 이용객 수 역시 크게 늘고 있다. 완도~제주간 누적 탑승객은 지난 7월말 현재 30만 72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만 1164명보다 53% 늘어났다.

이처럼 제주 관광객들에게 블루나래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운임이



항공기보다 훨씬 싸고 차량을 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 여행할 경우 제주도에서 별도의 차량을 빌려도 되지 않아 경비를 절약할 수도 있다.

또 최근 목포~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아졌고, 제주까지도 2시간 5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블루나래(3241t급)호는 여객정원 572명, 차량 65대를 함께 실을 수 있고, 최대 34노트(시속 63km)까지 속력을 낼 수 있고 제주를 오가는 8개 항로 여객선 중 가장 빠르다.

내부에 매점과 어린이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어 가족 관광객이 편하게 즐길 수 있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특성이 돋보여 있다.

한일고속 관계자는 “블루나래호는 빠르고, 관광객들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주고 있다”면서 “차량을 함께 제주까지 가지고 갈 수 있어 여행 경비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일고속은 지난 1979년부터 완도~제주 간 운항을 시작해 지난해 11월 완도에서 제주까지 3척의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홍어껍질, 목으로 화려한 변신 신안농기센터 요리법 개발 전수교육

그동안 버려지던 홍어껍질이 웰빙 향토음식으로 변모했다.

신안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우리 음식 연구회원 37명을 대상으로 홍어껍질을 이용한 홍어껍질묵 만들기 전수교육을 실시했다.

부안군 하서면은 “머위는 살균·항균, 항암 효과가 있어 웰빙 식품으로 인기가 높아 기업과 학교 급식으로 선호도가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서면은 머위를 2013년 신성장 소득작목으로 선정하고, 최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주관 아래 머위 재배 성공을 위

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재배를 희망하고 관심이 많은 부안지역내 농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성오 원장대 교수가 머위 재배에 따른 전문교육을 진행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머위를 신성장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안 참머위 작목반’을 구성해 친환경 재배와 차별화를 통해 공동 급식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미를 맛볼 수 있는 껍질 묵은 막걸리와 곁들이면 일품이다.

김윤배 소장은 “우리음식 연구회원들이 전통음식을 계승 발전시키고, 향토음식을 개발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서편제, 세계를 흔들다

10월 20~21일 보성소리 축제

‘제15회 서편제 보성소리 축제’가 오는 10월 20~21일 이틀간 ‘서편제 보성소리! 세계를 흔들다’라는 주제로 서편제 보성소리 전수관과 다향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보성문화원(원장 정형철)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우리 소리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격조있는 문화행사로 펼쳐진다.

경연대회는 판소리와 고수분야로 나눠 명창부와 대학 및 일반부, 신인부, 학생부 등으로 나뉘어 열린다.

첫날인 20일에는 기념행사와 전국 판소리·고수 경연대회 예선, 전

통예술평가 공연, 조상현 명창 공연, 대북과 가야금 협연공연, 청소년 어울마당, 어르신 문화나눔 등 다양한 국악단체의 흥겨운 우리가락 한마당이 마련된다.

둘째날인 21일에는 성장순·안숙선·조봉달 등 인간문화재와 명창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천하제일 명창공연과 김덕수 사물놀이, 전국 외국인 및 이주여성 참가하는 우리소리 경연대회가 진행된다.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상, 고수 경연대회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난해 열린 '서편제 보성소리 축제'. (보성군 제공)

장관상이, 학생부 종합대상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이 각각 수여된다.

대회참가 희망자는 9월 3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참가신청서를 보성군청(061-850-5203), 보성문화원(061-850-5892)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보성소리는 서편제의 기반 위에 동편제와 종고제를 아우르는 독특한 창법의 소리이다. 보성은 서편제의 비조 박유전 명창을 비롯한 정재근·정응민·정권진, 조상현, 성창순, 성우항 등 많은 판소리 명창들을 배출했다.

/동부취재본부=김용백기자 kyb@

장성군 '명품 맛집' 육성 나섰다

내달부터 참여 음식점 모집 시설개선 등 지원

장성군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청결하고 맛있는 음식과 친절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명품 맛집’ 육성에 나섰다.

군은 깨끗한 음식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8월부터 12월까지 ▲미락단지(생태거리) ▲축령산(피톤치드 거리) ▲장성호(호수의 거리) ▲장성읍 중심가(특화거리) 등 4개 지역의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명품 맛집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테마별로 음식단지를 조성해 장성을 대표하는 브랜드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9월 1일부터 참여 업소를 모집할 예정이며, 현장 평가 실시와 이용자의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토대로 맛집으로 육성할 업

소를 10월 중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군은 지정된 업체에 준비를 투입해 음식점 시설개선, 화장실 개선, 저온저장고 지원 등과 지역의 특색 있는 메뉴개발을 위해 음식매너지 도입, 친절서비스 교육, 타시군 벤치마킹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군에서 활발히 추진중인 청렴문화 체험교육과 연계, 리플릿에 맛집을 게재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단순히 상징적 의미만 갖는 맛집이 아니라 맛·청결·친절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장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061-390-7312)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폭우피해 복구 최선 다해 달라”

박재순 농어촌공사 사장 여수 방문 농업인 격려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지난 26일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여수지역 현장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관계 직원들과 농업인 등을 격려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형운)에 따르면 지난 24일 총 400mm 가까이 내린 집중호우로 여수 관기지역 180ha에 이르는 농경지가 침수됐다.

공사는 만조로 인해 관계방조제 바다쪽 배수갑문 개폐가 어려워지자 농민들과 함께 트랙터 9대를 긴급 투입해 수문을 개방하는 등 호우 대응 활동을 펼쳤다. 또 관내 배수장 7개소를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지난 26일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여수지역 현장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관계 직원들과 농업인 등을 격려했다.

풀가동시켜 침수지역 피해를 최소화했다.

박재순 사장은 “폭우 피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한 지역 농업인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달라”며 “제15호 태풍 볼라벤(BOLAVEN)이 상륙함에 따른 침수지역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토록 철저한 대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전 북

부안군 머위 신성장 소득작목 육성

부안군 하서면이 웰빙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머위를 친환경적으로 재배, 신성장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대형급식사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부안군 하서면은 “머위는 살균·항균, 항암 효과가 있어 웰빙 식품으로 인기가 높아 기업과 학교 급식으로 선호도가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서면은 머위를 2013년 신성장 소득작목으로 선정하고, 최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주관 아래 머위 재배 성공을 위

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재배를 희망하고 관심이 많은 부안지역내 농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성오 원장대 교수가 머위 재배에 따른 전문교육을 진행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머위를 신성장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안 참머위 작목반’을 구성해 친환경 재배와 차별화를 통해 공동 급식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해풍 고추축제 비빔밥 비비기

지난 25일 고창군 해리면 해리중학교에서 열린 ‘제16회 고창 해풍 고추축제’ 행사 일환으로 이강수 군수 등 관내 기관장들이 3000인분의 비빔밥을 만들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남원 춘향골 배 올 첫 수출길

캐나다·대만에 28t 선적...프랑스 식품박람회도 참가

남원지역에서 생산된 ‘춘향골 배’가 맛과 당도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해외수출에 탄력이 붙었다.

27일 남원시는 “26일 캐나다와 대만에 ‘춘향골 배’ 28t 수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해외 수출길에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올해 원양·황금·신고배 300여t을 프랑스·동남아·뉴질랜드 등 세계각국으로 수출할 계획이 있다.

춘향골배 재배단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캐나다·대만 수출원에 전 문생산단지로 지정받아 최첨단 당도측정 시설과 저장시설을 갖추고 공동 선별후 국립 식품검역원

의 까다로운 검역과정을 거쳐 수출한다.

시는 ‘춘향골 배’가 해외 각국으로 수출됨으로써 브랜드가치 상승으로 인한 해외수출 증가는 물론 국내 대형 유통업체 납품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춘향골배 재배단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캐나다·대만 수출원에 전문생산단지로 지정받아 최첨단 당도측정 시설과 저장시설을 갖추고 공동 선별후 국립 식품검역원

의 까다로운 검역과정을 거쳐 수출한다.

시는 ‘춘향골 배’가 해외 각국으로 수출됨으로써 브랜드가치 상승으로 인한 해외수출 증가는 물론 국내 대형 유통업체 납품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들이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은 물론 수출물류비 상환지원과 수출포장재 지원 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시정 점검하고 취약계층 지원 모색

정읍시의회 업무연찬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일환)는 최근 전문위원과 함께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연찬을 가졌다.

이번 업무연찬은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 15개과의 시정 주요사업 120여개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대안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업무연찬에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

을 비롯해 ▲취약계층을 포함한 청년과 장년층 일자리 창출 대책 ▲신정동 지역 첨단 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정일환 위원장은 “이번 업무연찬을 통해 합리적인 집행부 견제로 시민세금 낭비 사례를 방지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의 지원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들에게 더 나은 의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부안군 기관·단체들 다문화가정 돕기

부안군내 기관·단체들이 지역내 생활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돕기 위해 재정기부와 재능기부에 나서 ‘희망 바 이러스’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27일 부안군에 따르면 부안 행정병원을 비롯해 부안 좋은교회, 서해로 타리클럽, 해당와 로타리클럽, 국립

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사무소, (사)남부환경연합 등은 최근 재정기부와 재능기부에 나섰다. 이 기관·단체들은 지원 대상 가정을 방문해 최근 지방 보수를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단 신

전주시 우수 비빔밥 업소 4곳 선정 발표

전주시는 27일 맛·가격·서비스 등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된 가족회관·고궁·한국관(금암동)·한벽루 등 비빔밥 업소 4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들 업소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 평가위원의 평가를 합해 평균 ‘만족(75

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곳이다.

전주시는 비빔밥의 맛과 서비스를 높이고자 앞으로도 이런 평가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연속해서 낮은 점수를 받는 업소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정읍시 정병선 의원 지역발전 공로대상

정읍시의회 정병선 의원이 최근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추후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공로부문 지역발전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풀뿌리 정치에 뛰어든 정 의원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관

경 조례’를 비롯해 일용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등 14건의 건의안을 발의했다. 또 정 의원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8개 단체에 3500여만 원을 지원하는 등 사회약자에 대한 봉사를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남원시 온라인 화상(수화)상담 서비스

남원시가 9월부터 상담 사각지에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불편해소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화상(수화)상담 서비스’ 제공한다.

온라인 상담서비스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부 대표 민원전화(110) 웹페이지 홈페이지

(www.110.go.kr)에 접속해 상담원의 수화 음성으로 통역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각·언어 장애인은 시청 민원실,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 민원상담 요청 시에 웹 카메라가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서비스를 받게 된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변산반도 사무소 소외계층 자녀 수학여행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윤석)는 9월 8~9일 1박2일동안 가정형편상 생태관광의 기회가 적은 소외계층 자녀 32명을 대상으로 수학여행을 추진한다.

이번 수학여행은 서울의 대표

국립공원인 북한산국립공원에서 자연체험 및 트레킹 탐방을 한다. 남산타워에서 케이팝가 송신 체험 및 롯데월드 놀이공원과 코엑스 아쿠아리움 탐방 등 다채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